치솟는 원자재값 부담…광주 외식물가 39개 중 34개 올랐다

밀가루·식용유 30~70% 폭등
7개 외식비 두 자릿수 상승률
전남은 38개 품목 가파른 상승
국제 식량·유지류 가격 고공행진
물가 부담 갈수록 커질 듯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9년 동안 튀김집을 해온 A(54)씨는 지난 연말 음식 가격을 500~1000원 올렸지만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소연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인 밀과 식용유 값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부담이 또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식용유 10ℓ 한 통 가격은 5만1000원으로, 지난 연말(2만9000~3만1000원)보다 61.3%에서 많게는 72.4% 가량 인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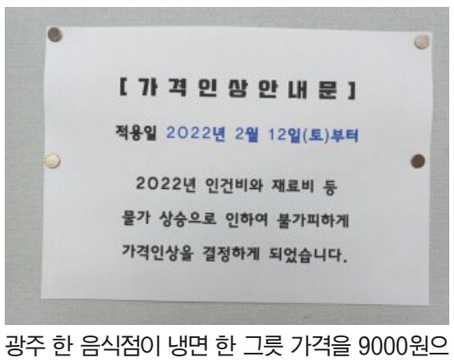
이 튀김집은 하루 10ℓ 들이 식용유 한 통을 쓰는데, 한 달로 치면 식용윳값만 60만원 안팎 더 드는 셈이다. 밀가루 20㎏ 가격도 같은 기간 3000~4000원 올랐다.

A씨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하루 3~4시간 쓰는 것도 버거워 우리 부부 모두가 주방일에 투입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이미 연말에 한 번 올린 메뉴 가격을 또 올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6년 넘게 광주 수완지구를 기반으로 영업해온 한 딸기 디저트 전문점도 딸기와 생크림 가격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대표 상품 딸기 케이크 가격을 최근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16.7% 올렸다.

재료비와 배달료 인상,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광주·전남 외식 물가가 1년 새 6% 안팎 올랐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 '3월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역 외식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 5.6%·전남 6.0% 상승했다. 전남 외식 물가가 6%대를 나타



광주 한 음식점이 냉면 한 그릇 가격을 9000원으로 올리며 붙인 안내문.

낸 건 2011년 8월(6.2%)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호남통계청이 조사한 외식 물가 39개 가운데 지난달 광주는 34개, 전남은 38개 품목 가격이 전년보다 올랐다.

광주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외식물가는 생선회(16.2%)와 떡볶이(14.1%), 김밥(13.5%), 라면(12.2%), 죽(10.8%), 햄버거(10.4%), 냉면(10.1%) 등 7개 품목이 있었다.

전남에서는 갈비탕(12.9%)과 막걸리(11.6%), 죽(10.8%), 햄버거(10.4%) 등 4개 품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지역 설렁탕 평균 가격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피자와 비빔밥, 생선회, 스테이크 가격이 두 달째 상승 중이다.

국내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서 국제 식량 가격은 전달에 이어 또다시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당분간 물가 부담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FFPI)는 전달보다 대비 12.6% 오른 159.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이 지수가 도입된 1996년 이래 최고치로, 전달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오른 가운데 곡물과 유지류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145.3포인트)보다 17.1% 상승한 170.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과 옥수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비중은 전 세계 30%, 옥수수는 20%에 달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른 파종 면적 감소로 올해 곡물 수확량이 작년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만큼 곡물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3.2% 오른 248.6을 기록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4.8%, 유제품과 설탕은 각각 2.6%, 6.7% 각각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 시장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주요 곡물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 농지보전 강화, 비축 물량 및 시설 등 인프라 확대, 해외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적인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을 협의·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골목상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5억원 출연

광주시·광주신보와 협약
147억원 규모 특별보증대출

광주은행은 최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특별출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2022년 제4차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진행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광주신보는 광주지역 도·소매업,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47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시와 광주신보, 지역 금융기관들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 보증대출에서는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광주시가 먼저 2.5%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고객이 납부한 나머지 이자는 광주시가 1년간 매분기 다음달에 고객의 이자 납부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총 38억원을 광주시에 특별출연했다. 이를 재원으로 6800여 지역 업체에 총 845억원을 대출지원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광주신보와 '2022년 상생발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10억원을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올 3월 말 기준 2만8914건, 1조3026억원에 이르렀다.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과의 상생과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광융합 기업 홍보 서비스 확대

신제품·신기술 등 소개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언론 등 매체홍보가 어려운 광융합 기업들의 제품과 회사 소개를 대신해 홍보를 펼쳐주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0일 진흥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제품이나 신기술개발, 투자 유치, 수주·공급 계약 체결 등 기업의 소식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언론을 비롯한 매체 홍보를 고려하지만, 보도자료 작성과 광고비에 대한 부담, 언론사와 협의 과정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회는 한국광학회와 공동 발행하고 있는 광융합 전문정보지 'K-라이트'에 2018년부터 기업들의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라이브 커머스 홍보도 지원한 바 있다.

전문정보지 K-라이트의 경우 올해 3월까지 54개사, 60개 제품·기술을 소개했다. 또 광융합 라이브 커머스에는 ㈜지오씨를 비롯한 45개사를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와 2021광융합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기간 중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진흥회에서 매달 2회 발행하고 있는 광융합 e-뉴스레터에 홍보를 희망하는 기업의 뉴스를 구독자 및 바이어 1만4500명을 대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뉴스레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해당 홍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뉴스레터 기능을 개선하고 홍보 건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K-라이트에도 홍보 지면을 확대하고 진흥회 출입 기자단과 협의를 통해 광주지역 광융합 기업 및 국내 광융합 기업들의 소개도 확대하겠다는 게 진흥회의 구상이다.

이밖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홍보 지원으로 디지털 홍보컨텐츠(UCC) 및 홍보동영상 제작지원과 광융합산업 온라인 비즈니스 수출 플랫폼(pobp.kr)도 계속 운영한다.

수출 플랫폼을 통해 국내 광관련 기업의 주요제품과 신기술을 해외마케팅센터(14개국 21개소)를 통해 발굴한 2100여명의 유망바이어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실질적인 바이어를 확대 발굴해 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기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광융합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매체 홍보 및 온라인 홍보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판로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보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진흥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거나, e-뉴스레터를 통해 신청하면 홍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선글라스로 봄볕 눈 건강 지키세요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9층 행사장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선글라스를 착용해보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광주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브랜드들은 최대 60% 할인 판매를 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중대재해예방 위해 안전의식에 불을 켜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Switch On Safety On 대회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8일 중대재해예방과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2022 Switch On Safety On 대회'〈사진〉를 실시했다.

'Switch On Safety On' 행사는 올 1월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열린 안전결의대회에서 밝힌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올해 안전목표 슬로건이다. 임직원 모두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의식에 불을 켜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1공장 대식당 앞 광장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래석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원과 안전환경 섹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석했고, 부서정과 현장관리자, 임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 방지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소망 퍼포먼스로, 현장 최일선 관리자인 생산관리자들이 직접 작성한 안전소망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부착한 대형 '나우리 통(Tong)'을 무대 앞에 설치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각자 안전소망 박스를 선택해 나우리 통에 집어 넣으면

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또 이날 기아에서 운영중인 어플케이션 '나우리Tong'을 활용해 임직원들의 안전테마 등록을 유도, 선착순 150명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병행했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 1월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한 이후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중대재해 없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신보 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제도 운영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실패를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신보는 지난 3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협약을 통해 미상각 채권의 원금 감면율 및 감면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신청 때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미상각 채권일 경우 최대 30%까지만 원금감면이 가능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미상각 채권이라도 12개월 이상 경과하면 최대 70%까지 원금감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상각 채권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상각업체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원금의 70~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통해 상환한 업체는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신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기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손해금율(연체이자율)을 9%에서 8%로 낮추고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확대하며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1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2	15	25	34	36	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119,380,079	8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3,017,780	66
3	5개 숫자일치	1,495,568	2,781
4	4개 숫자일치	50,000	136,828
5	3개 숫자일치	5,000	2,278,193